

북한이탈여성의 ‘돌봄과 일’에 관한 연구*

- 제3국출신 아동을 둔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 기 영

주저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lee388@pusan.ac.kr



백 정 원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ourwhite@hanmail.net



김 민 경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gurom@hanmail.net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492).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아동의 돌봄과 경제적인 일을 양립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현재 제3국을 통하여 입국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모와 동반 입국한 북한이탈아동과는 다르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25개의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고, 다시 12개의 주제와 있는 여성의 경험을 25개의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고, 다시 12개의 주제와 4개의 주제군으로 정리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 탈북의 과정, 이혼, 재혼과 같은 다양한 가족관계들의 일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탈북직후에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좌절을 통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 돌봄과 일을 하고 있는 한계 →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힘을 낸다는 일련의 순환구조 속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북한이탈여성, 일가정양립, 제3국출생 아동

I. 서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등의 심각한 식량위기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이나 남한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중 남한으로 들어와 정착한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수가 두드러지면서 그동안 단일집단으로 간주해왔던 탈북자들의 집단 내적 다양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수치상의 증가에 초점을 둔 집단 내적 다양성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북한연구의 기본적인 출발인 어떤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어떻게 북한을 연구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북한학 연구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북한연구에서는 방법론 논의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북한연구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비교공산주의 연구의 틀 안에서 인식론의 문제와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관점 문제 등에 대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이온죽, 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안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이들이 남한으로 입국을 하면서

체제가 다른 우리사회에 조속히 정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사회에 적응의 핵심인 돌봄과 일이라는 문제 즉, 자녀양육과 취업의 문제에 가장 밀접되어 있는 20-40대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그들의 삶 속에서 일·가정 양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일 것이다. OECD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은 ‘가족의 자원과 아동발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일과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며 성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모든 가족친화적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OECD,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북한이탈여성에게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을 간과되고 있다.

이들의 일·가정 양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교육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생계를 위해 교육을 포기하거나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 이후 제3국 체류가 장기화 되면서 생존을 위해 원치 않는 결혼과 출산으로 교육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특히 최근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탈북자의 경우 장기간의 도피생활, 결혼, 출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 경력단절과 소모가 장기화되면서 남한에 입국하여도 취업을 위한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동(식당, 제조업)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되게 되며 노동시장으로의 전입에 더욱 취약해 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전입이 어려워질 경우, 취업과 경제적인 부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이탈여성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에 초점을 둔 ‘돌봄과 일’에 대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이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부모와 사회의 적절한 보호 하에서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고, 장차 통일 시대를 대비할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정영애, 2013).

II. 선행연구

197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북한여성 연구의 주제 중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은 여성 일반을 다루는 연구가 가장 많다. 그 이외에 법·정책·제도, 가족, 이데올로기 및 여성의 지위와 역할, 이데올로기, 여성상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한여성 일반과 법·정책·제도 등 2개 유형의 주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김석향, 2012).

하지만, 탈북과정에서 결혼·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국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 중 자녀의 돌봄과 경제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1. 북한이탈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가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다. 박정란(2006)의 연구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자녀돌봄과 일에 대해 다루었는데, 부모나 친지 등의 가족관계를 통해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비혼인상태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다급함으로 자녀양육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하기에 일과 양육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통일부(2014)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녀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탈북여성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욱 호소하는데(전우택, 2006), 양육과 한국사회에의 적응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가기에 어려움에 노출된다. 더불어 자녀양육에 있어 교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프로그램 참여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일·가정 양립정책의 현황

먼저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돌봄과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재정지원제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이하 전 계층에 대한 ‘양육수당’을 매달 10-2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고운맘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지원금’(거주기간, 신고기간 제한)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둘째로, 휴가제도로 우선 출산전후90일간 ‘산전후휴가제도’가 실시된다. 이 중 초기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통상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135만원)를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유사산휴가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아내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5일(3일유급) 제공되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임금의 40%(50~100만원 상한)이다. 2012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64,071명이지만, 이 중 대다수는 여성이며, 남성사용자는 1,790명에 불과하다(2013, 통계청). 셋째, 서비스 지원제도로 먼저 ‘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정영애, 2013).

3.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정책현황

정부는 1997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일방적·수혜적 보호’ 중심의 정착지원방식에서 우리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자립·자활’ 중심의 정착지원으로 기조를 변화시키고, 지원을 확대해 왔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정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주지에 정착하기 위한 정착지원금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통일부, 2013).

현재 북한이탈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탈북 여성 출산 시 1명당 35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연인원 1,375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탈북 여성 출산자를 대상으로 최대 30일까지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교육을 통해 산모 및 영·유아 돌보미로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탈북 여성 맞춤형 지원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장려금’을 만 13세 이하 한부모아동에 대해 세대당 3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탈여성의 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_STOP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2012년 현재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센터는 서울의 서부 새일센터, 경기새일지원본부, 김해 새일센터 등 3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사업과제가 제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방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정영애 외, 2013).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접촉, 본격적인 자료수집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한국입국과정과 입국초기부터 면담이 진행된 현재까지 경험한 남한에서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개방형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 1명당 면담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면담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추가면담을 1회~3회 실시하였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비밀보장, 인터뷰 녹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든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면담 도중 연구 참여자가 녹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지하였으며, 면담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즉시 중지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들이 작성한 개방형 형태의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는데, 참여자의 자녀가 면담진행 당시 함께 있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경우 특수한 사례에서 보편적 현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질적연구의 패턴을 따라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개별적인 배경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독특하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개인별 탈북여성의 경험을 단서로 이들의 경험에 따른 보편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Colazzi(1978)의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이 안에서 보편적인 공통적인 요인과 요소를 도출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분석의 문자화, 주제어 도출과 범주화, 질적 내용분석, 연구결과 도출과정으로 진행하였다(Flick 2009). 첫째 단계는 녹음된 음성 자료를 문자화하였다. 모든 심층 면담자료는 녹음하여 다시 전사작업을 통하여 문자로 전환 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 피면담자의 발언과 그 순서를 적고, 말의 끊김, 문자의 끝남 등을 그대로 변환하였으며 녹음 내용과 문자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정확히 기록하였다. 또한 자료의 익명성(이름, 장소, 시간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문자로 변환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 및 내용과 관련성이 큰 내용들을 집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셋째 단계에서는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내용을 선행 연구나 관련 이론들과 연결하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였다. 넷째 단계는 연구결과 도출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현상, 의미와의 관련성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tales)”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van Manen, 1988).

3.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3국출생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여성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하였다. 연구자 중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역 정착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하나센터에서 3명을 추천을 받아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이후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다른 참여자를 추천을 받아 총7명의 연구참여자를 인터뷰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이해와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① 현재 꾸준히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자 ② 1997년 7월14일²⁾ 이후에 입국한 자 ③ 현재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찾아진 구성의미들을 명목화시키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이 같은 기준은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 시 요구되는 기준인 ‘적절성’, 즉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과 ‘충분함’, 즉 연구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가 도달하도록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이중은, 2008).

이러한 참여기준을 통하여 총 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참여자의 나이는 35세에서 47세 사이로 기혼자가 4명(동거포함), 별거 2명, 사별 1명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입국년도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로 조사되었고 모두 사회 적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식당, 제조업, 회사원이었다.³⁾

2) 입국연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지원법의 차이에서 취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성호, 2001)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모두 같은 지원정책을 받았던 대상으로 선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1997년 7월14일 이후로 입국자를 한하였다.

3) 본 면담은 면담의 특성 상 연구참여자의 본인의 집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이들이 가정에 함께 있었던 연구참여자의 경우 자녀들 또한 면담과정에 일부분 참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연령	직업	탈북 년도	입국 년도	총 자녀수	자녀의 출생년도	자녀의 입국년도	배우자 (출신국) 현재동거여부
1	36	식당 종업원	2003	2007	1명 중국출생	2004	2010 (초청)	배우자 (조선족) 별거
2	40	회사원	1997	2003	2명 중국출생1명 한국출생 1명	2000	2004 (초청)	중국 (조선족) 별거
3	39	제조업 (미싱) 직원	1999	2012	2명 중국출생	2001 2011	2012 (동반)	중국 (한족) 동거
4	46	식당 운영	1999	2005	3명 북한출생1명 중국출생1명 한국출생1명	2001	2007 (누나동반)	현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동거
5	35	제조업 (공장) 직원	1999	2011	3명 중국출생 2명 한국출생 1명	2002 2006	2014 (여행비자) 2012(초청)	중국 (조선족) 동거
6	35	식당 종업원	1997	2012	2명 중국출생	2003 2009	2012 (여행 비자) 2012 (동반)	중국 (조선족) 동거
7	47	제조업 (파이프 제조) 직원	1998	2008	2명 북한출생1명 중국출생1명	2001	2010 (이모와 동반)	중국(한족) 배우자사망

IV. 연구결과

연구분석 결과, 7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은 52개가 나왔으며, 그 중 중복되는 진술을 제외하고 25개의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다. 이는 다시 12개의 주제로, 최종적으로는 4개의 주제군으로 정리되었다.

〈표2〉 연구참여자의 돌봄과 일 양립경험 범주화 결과표

주제군	주제	구성된 의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노력	항상 빡빡한 나의 삶	· 항상 시간에 쫓긴다 · 집을 치울 시간도 없다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	· 새롭게 옮기는 것도 힘들고 적응 하는것도 힘들 · 견딜 수 있으면 그냥 한다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움	· 이 아파트에 사는 것도 조심스럽다 · 주소를 적을 일이 있으면 안 적게 된다 · 아이에게 내 얘기를 하지 않는다 · 아이도 엄마가 북한에서 온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아이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움	· 무슨말인지 모르겠다고 함 ·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보고 너무 속상함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혼돈	· 알림장이 뭔지도 모르겠음 · 방과후나 스쿨뱅킹과 같은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아이를 도와주지도 못함	· 아파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함 · 학부모 상담이나 학부모 회의 때도 가지 못함
	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한 후회	· 그냥 중국에 둘 걸 이라는 후회가 됨 · 계속 혼자 두는 모습이 너무 불쌍함
한계에 부딪힘	아이를 키우는데 지원이 없음	· 한부모가정지원 혜택이 없다 · 사주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준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낌	· 내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 일할 때 급할 때 봐줄 친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갈 때 너무 미안함
삶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냄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믿음	· 내가 벌어서 하면 애 교육을 시킬 수 있다 · 나 혼자 한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다
	학교와 주변에서 도움을 받음	· 담임선생님께 솔직히 나를 밝히고 도움을 받는다 · 학습지 선생님께 웃돈을 더 주고 아이교육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

1. 직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

1) 항상 뻘뻘한 나의 삶

남한에 온 후 이들 여성들의 삶은 항상 육아와 자본사회의 경제적인 삶 속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의 연속이다. 남한에 도착한 직후의 정착금은 오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초기비용으로 다 써버리게 된다. 그렇기에 이들은 정착과 동시에 빠르게는 일주일 ~ 2달 사이에 직장을 갖게 되면서 육아와 경제적인 책임과 필요성이 항상 공존하게 된다.

우리도 일을 하다보면 아덜한테 치울칠새도 없어, 힘들어갖고 집에 와서 꼬꾸라지고 자고 하면 뭐 언제 뭐, 집에서 놓고 뭐 어찌면 한가한 시간 있어 아덜한테 교육을 어찌어찌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친데 하루에 10시간은 맨날 보통 10시간이고 잔업하면 11시간, 그렇게 하나까.....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남들은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복이는지 모르겠네...〈사례 7〉

고저 첫째로..경제적으로... 그것만 쪼매 되면... 회사도 좋은데 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아이를 맞춰서 고런 회사가려면.. 그런 회사는 남들은 다 가있지 않습니까? 내가 갈 자리가 없는거예요, 내가 발디딜 자리가 없는거예요, 안되더라고, 그제..〈사례2〉

2)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

여성들은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손님들과 대화를 할 때 또는 직장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북한말을 쓰는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곳도 마땅치 않다.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 가서 6개월 일했었어요. 원래 더 일하고 싶었는데.. 그... 급식하시는 그 저기에서 일하는 회사 자체가 밥먹는 사람이.. 급식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두 명을 쓰던 거.. 한명을 줄여갖고.. 내가 줄이는 대상자가 된 거예요. 조리사님이 계시니까, 나는 있어도 보조사업만, 청소, 설거지나 해주거든. 〈사례2〉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다섯시까지 하고 오고 지금 들어오

고 그러는데 뭐 담당의사도 만나보고 지금 아~ 사는게 힘들어요, 회사에서 짬뽕 3년인데,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사례6〉

뭐 자꾸 여기 저기 옮긴다고.. 별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자꾸 적응 해야되고.. 있는데가 안났겠나.. 힘들어도.. 그냥 있는데 있자해서 있어요. 〈사례3〉

3)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움

북한이탈여성들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하고 일부러 물어볼 때까지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별로 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중국에서 잠시 살았다고 하라고 하는 정도의 지침을 주면서 본인의 출신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야 중국에서 왔다.” 다른 애들 모르는데.. 아들은 다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몇 번을 울고 왔더라고... 엄마 누가 자기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요. 그래 가를 한번 만나서 그러지마. 다 똑같이 공부하고 왜 그런 말을 해... 중국에서 할머니집 이 거기 있어서 거서 살다왔어.〈사례2〉

제가 북한에서 왔거나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그러면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겠죠? 그래서 말 안해요. 자기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도 중국이나 북한에서 얘기 안해 주시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북한에서 온 애들이 있는지... 중국에서 온 애들이 있는지, 서로 몰라요. 〈사례4의 자〉

엄마고향이 북한인 걸 엄마는 말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보물상자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잠겨져 있어요. 열리면 비밀을 다 말하겠죠.〈사례1의 자녀〉

2.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1) 아이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움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들은 중간의 제3국을 거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말에 서툰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에 학교생활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아이들의 적응이 어려운 것을 들을 때마다

괜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 이상하게 아무리 그래도 재가 금방 어제 왕따 당했는데 오늘에 남을 왕따 주는 그런거 못되잖아요 , 곰사⁴⁾ 왕따 당했는데 근데 개네가 재가 자를 왕따 주자 해가지고 어쨌다고 옆에 같이 놀던 친구 애들이 그렇게 가서 말하니까 선생은 당연 그런 아들 믿지요 근데 개네도 재가 잘못했다 얹하고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말하자 해도 시간도 없고 상담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와서 찢찢 울면서 말해 니가 알아서 똑바로 해라. 니가 그런말 했니 안했냐 애가 가를 왕따 주자고 먼저 말해가지고 그랬다는거 그런거 비치지도⁵⁾ 말고 왕따 주겠다 말하지도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질질 짜며 지가 아니라고 <사례 7>

거기서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말도 안되고 글자도 안되고 막 그런데 맨날 학교 안가겠데. 어~ 찢찢 울며 학교 안가겠데 이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나 어쩌나? 이거 또 데려 왔는데 이거는 뭐~ 나로서는 일 다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사례7>

친구들이 제 말이 잘 안 들린데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거면 재미있어요. 선생님의 말은 반정도만 알아듣는 거 같아요 <사례1의 자녀>

2)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혼돈

여성들은 본인들에게도 새로운 교육환경에 처음으로 노출된다. 학교에서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한국의 엄마들은 알고 있는 학사일정에 대해 문외한이여서 실수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나도 진짜 힘들더라구요.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애라는거 학교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또 알림장인가? 잘 이해도 못하겠는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무슨 문자 왔더라구요. 스쿨... 뭐뭐뭐.. 방과후.. 그게 수강 그게 제한된다고.. 뭐 어떻게 알아보라고. 아.. 뭐가 뭔지.. <사례3>

4) 얼마전까지만해도

5) 상관하지도, 관여하지도

오늘 빨간 날은 다 휴식한다는 거지요. 나는 주말만 휴식한다 생각하고... 그 날 무슨 날이
랬더라. 그러가지고 업고 갔는데 문을 안여는데.. 아.. 그것때매 <사례4>

3) 아이를 도와주지도 못함

본인의 자녀들이 학교와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정작 엄마는 직장의 문제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노출하게 된다. 본인의 출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 회의나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안 하게 되고 학교 담임에게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더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첨에는 진짜 많이 속상했어요. 스트레스 짜증나가.. 자기도 짜증나겠지.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는지 집에서 물어보면 말도 안하고..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진짜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지금 조금씩 이제야 조금씩..<사례6>

애가 왕따를 당했다는데 학교를 가봐야 되는데.. 시간 안되서 못찾아갔지. 회사 안가면, 일안하면 못벌어먹고 사는데 나도 어찌질 못하지. 금까 막 학교 가서 부셔놓고 싶은데 못 찾아가고. 그 순간이 지나면 일하다가 보면... 아.. 또 먹고 살아야 된다. 거기서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말도 안되고 글자도 안되고 막 그런데 맨날 학교 안가겠데. 어~ 찢찢 울며 학교 안가겠데 이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나 어쩌나? 이거 또 데려 왔는데 이거는 뭐~ 나로서는 일 다니고 어쩔수 없잖아요.<사례 7>

말도 모르는데 다른 애들 한테 스트레스 받을까봐. 진짜.. 에이.. 옷이라도 뭐 또 뭐.. 사달라 해도 남들처럼 사입히지도 못하고.. 우리집에서 사실 재한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오히려 아빠도 그래요. 넌 중국에 보내면. 중국은 조금 저.. 소비하는 이런게 적지 않아요. 싸고.. 아 한테 돈이 드는 게 진짜 많아요.<사례 3>

4) 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한 후회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그래도 혼자 외국에 있는 것보다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지만, 막상 닥친 현실은 녹록치 않고,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이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후회의 감정을 느낀다. 중국에 남겨놓은 것보다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육아와 일이라는

것을 동시에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맘에 지금 여유도 없고 맘이 많이 아파가지고... 쫓. 내가 저 델고 온게 후회 되죠. 내가 적응이 안 되는데.. 원래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 데려갈려고 마음먹었는데 고생해가지고 애 똑 보니까 그게 아니고 먹고는 살게끔 해주자 해주자 그래 영주권 해줄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이혼은 하겠다 하고, 날 괴롭히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가만있기는 있거든요?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데 있다 개..개지랄하고 내가 아무래도 집..집 빼고 나가야 되는데 저 또 술 먹으면 보통 성격 아니거든요 눈에 또 독 있어요.<사례7>

중국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뭐.. 그런대로 뭐.. 농촌이니까.. 또 세금 이런 거 내 이런 걱정 없지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애들을 중국에 다 두고 내가 돈벌어서 중국에 돈 보내주는 게 더 나을껄 그런 생각도 많이했어요.<사례5>

진짜 침에 와서 내 진짜예요. 내 그릇도 그릇 살돈도 진짜 없어요. 한국에서 오면 돈이 없으면 못살거 같아요. 중국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뭐.. 그런대로 뭐.. 농촌이니까.. 또 세금 이런거 내 이런 걱정 없지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애들을 중국에 다 두고 내가 돈벌어서 중국에 돈 보내주는게 더 나을껄 그런 생각도 많이했어요.<사례5>

3. 일과 가정사이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힘

1) 아이를 키우는데 지원이 없음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현실적인 부분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크게 다가온다. 초기 정착에 있어 제3국 출생 아동의 경우 동반 입국한 아동들에 비해 지원금과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내가 둘 다 중국 애(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북한 자식들 데려오면 배려도 있고 그러매. (나는) 이제 한국 가면 뭐. 거지될 수 있고, 뭐. 진짜 뭐 아무 배려도 없고.. 근데 둘씩이나 데려오고 나보고 뭐 쫘 모자라지 않나...<사례 3>

중국 애라 해서 그런다고 해서 브로커 비용을 안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내야되잖아요. <사례 3>

여서(여기서) 살다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 없으면 못사는 사회.. 그리고 또 아직 젊었는데. 모든 게 다 돈이고. 요즘은 발걸음 하나하나 다 돈이잖아요. 벌어야 되겠다. 벌고 또 살아야 되겠고. 아이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것도 있고... <사례 1>

2)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낌

일과 가정의 문제 있어 힘들 때 지지를 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실제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같은 아파트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육체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고스란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친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롭다 할까? 그.. 외로움이 많고.. 항상 외로워요.. 외로워요. 근까.. 그 외로운 게. 참.. 외로운 부분.. 힘든... 일하면 항상 힘들잖아.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 힘들고.. 외로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나눠졌더라고. 힘들면... 힘든 거는 피곤하면 자연 되고.. 피로 풀면 되는데.. <사례3>

3)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여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홀홀단신 남한으로 탈북 하였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아이가 아플 때, 직장문제 등 위급한 상황에서 오롯하게 모든 일을 스스로 다 짊어져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아도 4명이니깐.. 원래 수급자 할 때부터요. 토요일마다 딸내미 데코서 리 알바 갔거든요. 식당에 데리가,, 너무 가슴아파가지고... 주방 요 구석에 앉혀놔요 그러면 핸드폰이라도.. 핸드폰 보고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나는 설거지하면서 그거만 보면 아 너무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겨요. 안 그러게..그래도 그나마 그 일하는 식당사장님이 봐줘가지고. <사례5>

혹간 진짜 좀 필요하면 친구들한테 땡겨놓고뭐. 울산에 친구 한 2명 있어요. 그래갖고 혹시 내 좀 필요하면.. 내 일가는데 좀 데릴러 좀 가줘.. 근데 자주는 못 그래요. <사례2>

4. 삶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낸

1)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더욱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격려를 한다.

아무래도 혼자몸일때는 잡혀가게 되더라도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애를 출산한 이후에는 애의 장래와 안전 역시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차라리 남한이 낫지요.<사례1>

변한 거는 공부도 그래도 여기오니깐 그래도 첫째 내가 시킬 수 있으면 내가 선생님들 불러서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좋더라구요. 중국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시키기가. 돈이 많이 들어... 거기는 버는 수입이 없는데 그걸시키려니까 이게.. 안맞는거예요. 그러니까 못시키는 거예요. 공부자체를 시키기가.. ..여기오니깐 한국 데려왔으니깐 이정도 공부를 안시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사례2>

2) 학교와 주변에서 도움을 받음

스스로 탈북자임을 밝히고 담임선생님께 밝히기도 하고 또는 학습지 선생님과 같은 주변 체계를 통하여 아이들의 학습부분과 생활부분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잘해낼 수 있다고 다독이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다시한번 더 노력을 한다.

학교 보내고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문화도 모르는데... 일단은 뭐 다른 아들하고 잘되겠는가? 안될까봐 그것도 고민이고.. 어떡해..눈높이해서 국어, 수학을 했거든. 일년동안 꼬박 했어요. 선생님 와가지고 학습지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추가비용 더 내가지고... 공부를 더 시켰거든요. 왜 원래 십분을 보시는걸 이십분 더 시간을 연장해가 일대일 수업을 해가지고.. 국어를 열심히.. 국어를 진짜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사례 2>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학교에 얘기하는 건 항상 조심스러워요. 제 경우는 담임선생님을 별도로 만나 제 탈북과정부터 입국까지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니 모르는게 너무 많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모든걸 오픈은 했지만 비밀로 해주시길 당부했어요<사례4>

첨에 왔을 때 그 선생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국어 첨부터 배워주고, 지금은 국어 60점
그래도 맞아요. 수학은 한 문제 틀리고 95점도 받아요. <사례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7명의 경험을 통하여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의 경험과 의미의 본질을 밝힘으로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주제군과 12개의 주제, 25개의 구성된 의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이들의 경험은 처음에는 남한사회에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희망을 기반으로 한 노력의 모습을 동일하게 경험하였다. 하지만, 항상 빠빡한 삶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웠고 나의 존재에 대한 조심스러움은 양육하고 있는 아이에게까지 엄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공통적인 경험으로 남았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가중되게 되는데, 이들의 경험은 주로 힘들게 남한사회에 데려온 본인의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큰 희망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적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엄마로써 도와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깝고, 본인에게도 낯선 교육환경과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계에 노출되는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내고 북한과 제3국을 거쳐오는 과정에서의 삶보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안해 보기도 한다.

탈북 여성들은 탈북 및 정착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이혼, 재혼, 가족관계의 불안정, 가족 분거 등 일반 여성들과 비교하여 결혼과 가족 구성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성 또한 안정적이지 않고 가족자원의 부족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친척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도 매우 취약하여 일반 여성들보다 출산, 양육, 자녀 돌봄 등과 관련된 역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취업과 병행하는 일도 훨씬 더 어렵다. 이들의 경험은 돌봄과 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후회→한계→다시 힘을 냄’이라는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후회와 한계의 순환구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도움과 아이의 남한생활 적응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힘들지만, 노력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아동에 있었고, 아동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여성 본인

뿐만 아니라 학교와 친구, 주변의 지지가 없으면 안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가장의 비율이 높고, 평균 이하의 경제적 수준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취업의 필요는 매우 크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나 성공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업률이 높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형태가 임시적이며, 불안정하다. 보다 전문적인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갖추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고, 돌봄 역할의 과중함으로 일반 여성들보다 취업의 장애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취업을 유지하거나 공식화하는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국가지원이 소멸되거나 감소되는 상황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이종은, 2008).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여성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을 다시 구성하는 주요한 인물이며, 자녀를 한국사회에서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조영아·김연희, 2010) 탈북여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더욱더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3국출신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지원되는 법률을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일부분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기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일단 이탈하게 되면, 이들 집단의 경제적 자립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성들이 북한출생 아이들과 제3국 출생 아이들의 동일한 처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안정망과 대책이 요구된다.



- 김석향. 2009. “탈북 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여성부
- 김석향 · 이은주. 2012. “북한여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6(2).
- 김성호. 200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보고서-생산적 적응과 정착”. 국감정책자료집 I.
- 박정란. 2006.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28집
- 이은죽. 1997.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와 남북한 사회통합”. 통일문제와 국제관계8(1)
- 이종은. 2008.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직장유지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5. 2(1) 33-61
- 전우택. 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45(3)
- 정영애 · 김윤나. 2013. “탈북여성 일 · 가정 양립 실태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 조영아 · 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09-527
- 통일부. 2013. “북한이탈주민고용길라잡이”
- 통일부. 2014.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 Flick, U. 2009.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asearch”. London : SAGA 305-328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Manen, J. 1988. “Tales of Field; On Writing Ethn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ECD. Facebook 2011.
-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재단) www.koreahana.or.kr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4) 제3국 출생 청소년 통계. <http://www.hub4u.or.kr/>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in Childcare and Work - Focusing on women with children born in 3rd country -

Lee Ki Young, Baik Jeong Won, Kim Min K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child-raising and work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who have brought their children born in China or third countries to live with them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third country-born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who have entered Korea, it is difficult to grasp an accurate statistic because of their various means of entry, and because there is very little research done on the North Korean defector women who raise such children.

By analyzing 25 meanings, 12 themes, and 4 theme clusters as experience constructs. A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e front, Due to the nature of North Korean women refugees and resettlement process, divorce, remarriage, unstable family relationships, family, etc. There appears difficulty women compared with the general difference in marriage and family structure. Their care and experience in order to maintain an effort→regret→limits→again yields a force I have a ring of circulation parameters on the most influence on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remorse and was found to be close to the limit with the help of South Korean life and adaptability of the child.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women, childcare and work,
child born in China or third countries